

유라조생 귤의 산지

와카야마현 유라초의 언덕 일대에는 감귤류의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유라조생(학명: *Citrus unshiu Yurawase*)’이라고 불리는 귤의 과수원입니다. 유라초에서 탄생한 유라조생은 ‘온주밀감(학명: *Citrus unshiu*)’의 신종입니다. 익는 게 빠르고, 껍질에 아직 초록빛이 남아 있는 9월 하순부터 수확됩니다. 이는 일반 귤보다 몇 주에서 몇 달이나 빠른 시기입니다. 외피는 얇고 부드러우며, 신선하고 쟁쟁한 오렌지색 과육이 매우 얇은 막에 싸여있습니다. 맛이 진하고 당도가 높으며, 단맛과 산미의 균형이 아주 좋은 귤입니다.

유라조생 귤이 탄생한 계기는 1985년 지역의 농가가 한 그루의 가지에 다른 열매보다 빨리 색이 든 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에 걸친 분석과 조사를 거쳐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의 성질이 변해서 생긴 신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품종은 일본의 일반적인 조생귤 품종인 ‘궁천조생(학명: *Citrus unshiu Miyagawawase*)’입니다. 돌연변이가 나타난 것은 발견되기 수십 년 전인 1960년에 심은 궁천조생 270 그루 중 1 그루였던 것입니다.

유라조생은 지금은 와카야마현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그 발상지가 유라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처음 돌연변이가 발견된 마을 북부의 미오가와 지구에는 이를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라초의 대부분 감귤 농가는 유라조생 외에도 노란 껍질의 감귤 고나쓰, 자동 크기의 팔삭 등의 품종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확된 과일은 대부분 와카야마현 밖으로 출하되지만, 현지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으며, 주스, 잼, 드레싱 등 지역 상품용으로 가공되는 것도 있습니다.